

Market Conditions

『Monthly』

2017. 02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최 성 수 대리 / 010-3144-2110



K2 LOGICS



Contents

01. 해운

02. 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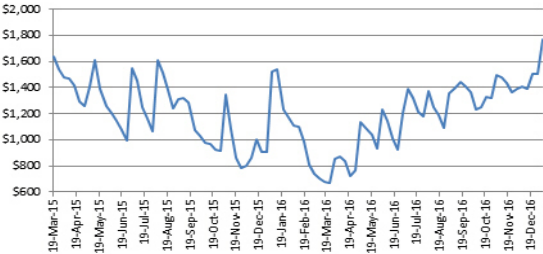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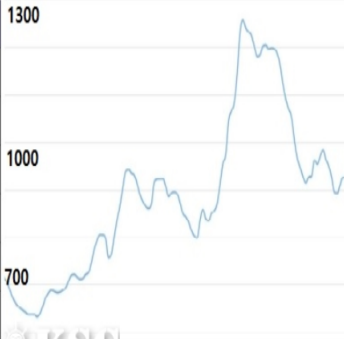
03. 물류

04. 무역

05. 화학

06. 철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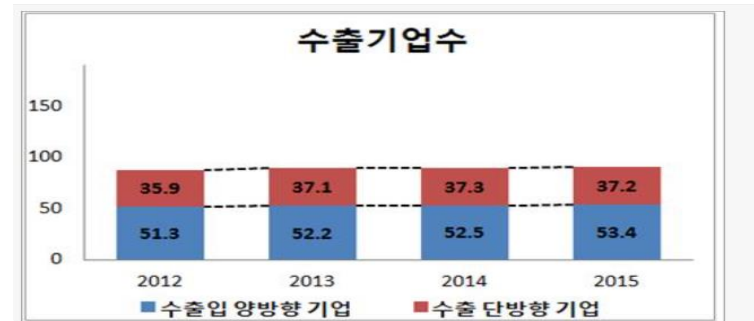


구 분		시 황	각종 지수 (시황 상세)																																			
해 운	아시아	<p>◆ 한중항로/ 장기계약화주 겨냥 운임회복 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시장 화주 대상 GRI 실시, 계약화주와 협상시작 / 물동량 성장이 배경- 코트라 : 작년 11월까지 대중 수출은 운송장비용 부품, 식음료 비내구소비재 성장세- 20FT당 \$50 인상 / SM상선 한진 인수 후 청도,대련,싱강항 재취항 예정 <p><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p>	<p>* 동서 기간항로 운임 5년만에 “최고치”</p> <p>World Container Index assessed by Drewry (composite index) in US\$/40ft container</p>  <p>Source: World Container Index assessed by Drewry</p>																																			
	중남미 & 미주	<p>◆ 중남미항로/ 트럼프 리스크, 멕시코 자동차 물량 타격 불가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생산 자동차부품 높은 관세 징수여파- 1월 남미 동,서안 운임 = TEU당 2천불선 유지 (춘절 물량 밀어내기 효과)- 선사들은 2월부터 300~500불 추가 GRI를 계획- 2월초 임시결항(블랙크세일링) 연휴직후 줄어들 수출물량에 대비 운임유지를 위해 <p><출처 : 주간무역></p> <p>★북미항로/ 중국 춘절 특수에 선복품귀 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15일 FEU당 \$600 GRI- 물동량 급증으로 선사들은 소석률(선복 대비 화물적재율) 100% 기록- 특히 북미동안은 서안북부와 남부 대비 스페이스 부족현상 심각- 3월 1일부로 선사들은 FEU당 600달러 GRI를 시행할 계획- 북미선사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정시율”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 <p><출처 : KSG></p>	<p>◆ 국제유가 현황</p> <p>(단위 : \$/ 배럴)</p> <p>WTI 01.30. 52.63 ▼ 0.54(-1.02%)</p> <p>두바이유 01.30. 53.74 ▼ 0.01(-0.02%)</p> <p>브렌트유 01.30. 55.23 ▼ 0.29(-0.52%)</p> <p><출처 : 뉴욕상업거래소(NYMEX) - WTI, 두바이 런던국제거래소(ICE) - 브렌트></p>																																			
	구 주	<p>◆ 구주항로/ 중국 춘절전 밀어내기 효과...깜짝 운임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발 수요로 구주항로 해상운임은 고공행진 / 반짝 성수기 돌입- 선사들은 운임하락을 예상하여 임시결항으로 선복감축 계획 / 인수합병 열풍 <p><출처 : 한국해운신문></p>	<p>건화물선운임지수 최근 6개월간 BDI 추이</p> <table><thead><tr><th>날짜</th><th>BDI</th><th>BCI</th><th>BPI</th><th>BSI</th></tr></thead><tbody><tr><td>1. 24</td><td>886</td><td>1466</td><td>964</td><td>708</td></tr><tr><td>1. 23</td><td>914</td><td>1579</td><td>962</td><td>714</td></tr><tr><td>1. 20</td><td>925</td><td>1610</td><td>970</td><td>718</td></tr><tr><td>1. 19</td><td>942</td><td>1665</td><td>981</td><td>722</td></tr><tr><td>1. 18</td><td>952</td><td>1673</td><td>998</td><td>725</td></tr><tr><td>1. 17</td><td>922</td><td>1509</td><td>1019</td><td>730</td></tr></tbody></table>  <p><출처 : KSG></p>	날짜	BDI	BCI	BPI	BSI	1. 24	886	1466	964	708	1. 23	914	1579	962	714	1. 20	925	1610	970	718	1. 19	942	1665	981	722	1. 18	952	1673	998	725	1. 17	922	1509	1019	730
	날짜	BDI	BCI	BPI	BSI																																	
1. 24	886	1466	964	708																																		
1. 23	914	1579	962	714																																		
1. 20	925	1610	970	718																																		
1. 19	942	1665	981	722																																		
1. 18	952	1673	998	725																																		
1. 17	922	1509	1019	730																																		
동남아	<p>◆ 동남아항로/ 비수기 불구 운임지키기 나선 선사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분기에 끌어올린 해상운임을 지키는데 주력 (비수기 돌입+선복 과잉) → 전년대비 7.4% 물동량 증가하였지만 선사들의 채산성 ↓- 최근 베트남 호찌민항의 적체현상이 심화되어 임시휴항으로서 해소할 전망 <p><출처 : 카고뉴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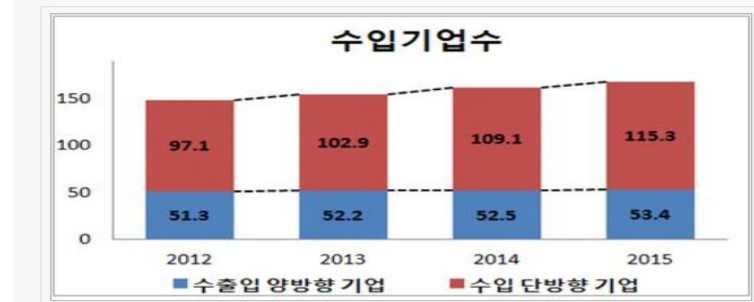
구 분	시 황	특이사항
<div data-bbox="192 721 256 751">항 공</div> <div data-bbox="319 932 343 1090">I S S U E</div>	<div data-bbox="399 191 876 219">◆ 작년 성수기 세계 항공화물 시장 “성공적”</div> <div data-bbox="437 232 1098 3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과 중국의 항공화물 시장이 전세계를 이끌어 이집트, 중국, 콜롬비아의 신선화물 수출 크게 증가 칠레발 수출화물 수요 16%증가 / 이집트 34% 증가율 기록 </div> <div data-bbox="399 468 864 496">◆ 중남미, 아프리카로 항공 네트워크 넓혀</div> <div data-bbox="437 508 1243 6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AO서 15개 국가와 신규항공협정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항공 네트워크가 더욱 전 세계로 확대 중남미 카리브지역의 바하마, 가이아나와는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해 양국 항공사가 횡수 제한 없이 운항 할 예정 </div> <div data-bbox="1106 184 1636 565"> </div> <div data-bbox="1437 668 1628 696"><출처 : 카고뉴스></div>	
	<div data-bbox="399 782 818 811">◆ 경기침체 불구 2Q 화물처리량 “쑥쑥”</div> <div data-bbox="437 822 1002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 중동지역 공항 화물 처리실적 : 전년대비 11.5% 증가 국제 무역침체에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꾸준히 증가 </div> <div data-bbox="399 1019 810 1048">◆ 작년 인천공항 화물처리 “사상최대”</div> <div data-bbox="437 1059 1471 1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항 이후 최대치 기록 (역대 최고 처리실적 경신) 물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인프라 조성 착수할 계획 전 세계 제조업 경기 회복, 소비재 수요 증가, 신선화물, 전자상거래 특송 화물 증가가 견인차 역할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동북아 경쟁공항 대비 비교우위 선제적 확보 </div> <div data-bbox="1197 751 1545 793">화물처리량의 증가율</div> <div data-bbox="1123 815 1612 1072"> </div> <div data-bbox="1437 982 1628 1011"><출처 : 항공뉴스></div> <div data-bbox="1437 1258 1628 1286"><출처 : 항공뉴스></div>	

구 분	내 용
물 류	<p>◆ 물류업계 “미국행 배 잡기 쉽지 않네”</p> <p>• 한진해운 후폭풍 여전, 中 춘절 대응 선복감축도 한몫</p> <p>비수기를 맞아 감축 운항에 돌입하는 선사들의 공지가 잇따르면서 화물을 싣지 못한 포워더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동맹선사인 한진해운이 빠지자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들의 기항이 줄며 선적을 하는 게 1년 전에 비해 어려워졌다”며 토로했다. 운임을 더 없애주면서까지 선적을 요청해도 미국으로 화물을 보내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현재 외국적선사의 선복을 쓰고 있지만 춘절이 맞물리면서 말도 안 되는 운임을 주면서까지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멈추지 않는 해상운임 상승 ‘포워더 압박’</p> <p>연초에 한진해운 법정관리 소식이 전해지며 미주항로의 해상운임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와 중국 국경절 연휴 전 수출물량 밀어내기로 지난해 하반기 해상운임은 크게 상승했다. 연초에도 운임 상승무드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 동안은 3000달러대를 웃돌고 있으며, 서안은 2000달러대를 돌파했다. 해상운임의 지속적인 상승에 포워더들은 할 말을 잃었다. 오른 운임을 화주에게 적용하려고 할 찰나에 새로운 운임인상(GRI) 소식이 날아 왔다. 포워더 관계자는 “해상운임 변동 폭이 한진 사태 이후 더욱 커지게 됐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운임이 상승하고 있어 화주에게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p> <p>◆ 4차 산업혁명...유통산업 생존전략은 '융합'</p> <p>■ “순수 전자상거래의 개념은 사라질 것이고, 온·오프라인·물류가 결합한 신(新)유통시대로 진입할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거래 중개가 아닌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유통4.0의 시대” 진입 ➢ 정책과제 : 과감한 변신, 플랫폼사업자로 전환, 글로벌경쟁력 확보 ➢ 해외진출 유통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해 국내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을 활성화 ➢ 내수위주의 전통적 방식 벗어나 글로벌 산업으로 변모 강구 <div data-bbox="1222 771 1926 1328">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쉬핑뉴스넷></p> <p style="text-align: center;">< 유통산업의 발전 개념도 ></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코리아 쉬핑 가제트></p> </div>

구 분	내 용
무 역	<p>※ KOTRA "트럼프노믹스 고려한 수출전략 짜야"</p> <p>→ 현지화 전략 재정립·수출시장 다변화 등 적극 대응 필요</p> <p>→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을 품목, 시장 등 수출동력을 다변화해 대미 수출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p>
	<p>※ 1월 수출 7% ↑ ... 반도체, OLED 성장 견인</p> <p>→ 2014년 4월 이후 33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증가 전망</p> <p>- 반도체 : 사상 최대 실적인 6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OLED도 약 30% 증가</p> <p>컴퓨터,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p> <p>대 중국 수출도 2014년 4월 이후 33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증가 추세</p> <p>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화장품,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등 67개 신 산업 연구 개발 세액공제</p>
	<p>※ 무역업체 수 20만 개 돌파</p> <p>- 통계청·관세청 공동 조사... 2012~2015년 연평균 7000개씩 증가</p> <p>- 무역 기업의 증가세는 수입 기업이 주도</p> <p>- 수출대상국이 중국인 기업은 3만3000개사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기업이 2만개로 뒤를 이음</p> <p>- 중국 대상 수입하는 기업의 수가 매년 5000개 이상 지속 증가</p>
	<p>※ "중국 마지막 기회의 땅 중서부로 가자"</p> <p>→ 무역협회, '중국 Go West 전략' 보고서 발간</p> <p>- 소비자뿐 아니라 바이어를 주목하라</p> <p>- 소비자의 주요 정보원과 구매채널을 장악하라</p> <p>- 한류 마케팅의 타깃을 명확히 하라</p> <p>- 중국 정부의 중서부 개발정책과 함께하라</p> <p>- '장강 중류 도시권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등 3개성을 중심으로 대형도시개발 계획</p>



<단위 : 천개>



<출처 : KOTRA, 주간무역>

구 분	내 용
-----	-----

화 학
(CHEMICAL)

◆ 미 상무부, LG화학·애경유화 가소제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 LG화학 5.75%·애경유화 3.96% 부과...“최종 판결까지 적극 대응”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가소제(DOTP)에 대해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작년 8월 DOTP 생산·수출기업인 LG화학·애경유화·한화케미칼 등 3사에 대해 '반덤핑으로 인한 미국 산업 피해가 인정된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가소제(Plasticizer) 중 DOTP(Dioctyl Terephthalate)는 플라스틱 제조시 고온에서 성형가공을 용이하도록 돕는 화학물질이다. 30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가소제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예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 DOTP 수출업체가 미국에 제품을 팔 때 공정 가격보다 싸게 팔아 덤핑행위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반덤핑 과세는 LG화학에 5.75%, 애경유화에 3.96%가 부과된다. 이 외에 한국산 가소제에 4.47%의 반덤핑 과세가 매겨진다. 이번 조치에 따라 LG화학과 애경유화으로부터 가소제를 수입하는 미국 업체는 반덤핑 예비관세율에 따른 현금을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CBP)에 예치해야 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DOTP 미국향 수출은 3122만 달러로

미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미국의 DOTP 총 수입은 16% 감소한 반면 한국산 수입은 전년대비 7.3% 증가했다. LG화학은 미국에 연간 100억원 미만, 애경유화는 200억원 규모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과 애경유화 측은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규모가 크지 않지만

미국 상무부의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미국 화학기업 이스트만(Eastman Chemical Company)의 요구로 진행됐다.

이스트만은 한국산 가소제에 23.7~47.8% 수준의 반덤핑 과세를 요구했었다.

미국의 DOTP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15 점유율	'15 증가율
1	한국	19,949	29,087	31,219	55.87	7.33
2	캐나다	13,783	13,672	12,675	22.68	-7.29
3	멕시코	12,074	10,126	7,204	12.89	-28.86
4	중국	4,691	6,331	2,075	3.71	-67.22
5	대만	119	1,549	908	1.63	-41.36
6	네덜란드	1,531	767	766	1.37	-0.16
7	이탈리아	510	2,866	293	0.52	-89.78
8	브라질	844	1,285	247	0.44	-80.81
9	이스라엘	252	99	229	0.41	131.95
10	인도	210	184	109	0.2	-40.59
총		54,538	66,882	55,880	100	-16.45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자료=코트라(KOTRA)

<출처 : EBN 화학뉴스>

◆ 화학업계 차세대 먹거리 산업 '바이오'
→ SK케미칼·코오롱생명과학 이어 LG화학까지 진출 / 생명과학 바이오 시장 2020년 1400조원까지 성장

화학업체들이 바이오산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전세계 레드(생명과학)바이오사업 시장 규모가 약 1100조원이고 오는 2020년까지 1400조원으로 연평균 5%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SK케미칼은 항암제인 선폴라,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스,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 등의 신약을 개발했다. 지난 2000년 한국 티슈진아시아로 설립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06년 원료의약품 및 환경소재사업을 받으며 그룹 내 주력 계열사로 자리 잡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퇴행성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했다. 인보사는 수술을 하지 않고 1회만 투여해도 1년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으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을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다.

구 분	내 용
-----	-----

◆ [트럼프 시대] 조선-철강업종-희비 엇갈리는 조선-철강

- 철강업, 보호무역주의로 수출길 제한 가능성 높아 / 조선업, 화석연료 규제 폐지로 해양플랜트 부활 전망
- 포스코의 경우 미국의 현지에 자동차강판을 공급하기 위해 멕시코에 가공센터 등을 구축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철폐 등의 공약을 현실화하면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 인상이 불가피해져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안 그래도 미국은 그동안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정부 보조금 및 초과 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미국으로 덤핑하고 있다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던 상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 철강업체가 △지역 및 국가별 타깃팅 전략 수립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 강화 △상대국 모니터링 강화 △정부와 외교적 물밑 접촉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수출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고급 강재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수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수출오퍼가

구분: CRC, HRC, SPCC 1.0mm, SS400 3.0mm

★ FOB Shanghai (USD/MT)

구분	1월 13일	1월 12일
CRC	590	579
HRC	500	490
SPCC 1.0mm	450	440
SS400 3.0mm	350	340

국내 주요 품목가격

구 분	공정도	유통가	수입유통
열연	1,060	770	730
후판	1,060	620	590
냉연	1,180	870	810
철근	620	615	590
H형강	840	745	685
STS CR	-	3,000	2,850

★ 수도권 1차유통, 도착도기준 (원/kg)

★ 철근: 1차유통 현금판매가(D10)-맞돈

◆ 철광석 상승세 유지, 원료탄,철강 가격 상승 영향

→ 구리 아연 원료탄 철광석 상승, 니켈,연료탄 하락 제철용 원료탄 가격 강세와 중국 구조조정 작용, 비철가격 상승세 전기동 5797달러 중국과 미국의 긍정적인 경제지표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6대 비철금속이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갔다.

14일 비철금속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된 전기동 가격은 톤당 579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0.78%(45달러) 올랐다. 이날 아연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가격은 모두 상승했다. 알루미늄과 납은 각각 0.11%(2달러), 1.42(31달러) 오른 1790달러, 2221달러를 기록했다. 니켈과 주석은 1만 115달러, 2만 1175달러로 1.40%(140달러) 0.33%(70달러) 상승했다.

비철상품 2016년	Cash(Official)	금역 변동폭	3M(Official)	재고량(t)	재고량 변동폭(t)					
날짜	1월 13일	1월 12일	금액(달러)	비율(%)	1월 13일	1월 12일	1월 13일	1월 12일		
전기동	5,797	5,752	45	0.78	5,828	5,779	281,700	285,700	-4,000	-450
알루미늄	1,790	1,788	2	0.11	1,792	1,787	2,244,175	2,248,875	-4,700	-8,575
아연	2,720	2,725	-5	-0.18	2,736	2,735	423,275	424,175	-900	-775
납	2,221	2,190	31	1.42	2,226	2,195	192,650	192,675	-25	-1,050
니켈	10,115	9,975	140	1.40	10,180	10,020	370,866	371,820	-954	-588
주석	21,175	21,105	70	0.33	21,125	21,050	3,850	3,825	25	-15

비철상품 2016년	Cash(Official)		금액 변동폭		3M(Official)		재고량(t)		재고량 변동폭(t)	
날짜	1월 13일	1월 12일	금액(달러)	비율(%)	1월 13일	1월 12일	1월 13일	1월 12일	1월 13일	1월 12일
전기동	5,797	5,752	45	0.78	5,828	5,779	281,700	285,700	-4,000	-450
알루미늄	1,790	1,788	2	0.11	1,792	1,787	2,244,175	2,248,875	-4,700	-8,575
아연	2,720	2,725	-5	-0.18	2,736	2,735	423,275	424,175	-900	-775
납	2,221	2,190	31	1.42	2,226	2,195	192,650	192,675	-25	-1,050
니켈	10,115	9,975	140	1.40	10,180	10,020	370,866	371,820	-954	-588
주석	21,175	21,105	70	0.33	21,125	21,050	3,850	3,825	25	-15

감사합니다

